

안전 · 배려 · 공감의 디지털 세상만들기

디지털 소통로 (law)



법무부



Contents

1. 디지털 배려

인터넷 속 캐릭터·아이디·연예인도 모두 현실 속 사람 이에요.	11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해주세요.	12
온라인 커뮤니티, SNS의 규칙을 준수해주세요.	13
메시지는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세요.	15
내가 잘 아는 내용을 공유해보아요.	1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17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세요.	18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악용하지 않아요.	19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 지적하지 마세요.	20

* 이 책에서 일부 용어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장난으로 옷 갈아입는 친구 사진을 찍었어요. 장난은 괜찮지 않나요?	30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해서 같이 보면 안 되나요?	32
친구에게 받은 몰카 영상을 혼자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은 괜찮겠죠?	34
어린 초등학생도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35
어떤 식으로 피해자가 되나요?	37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8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9
오래 전에 있었던 피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40
제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41
촬영에 동의한 저의 영상을 SNS에 올린대요.. 제가 동의했으니까 제 책임도 있는 건가요?	42
[부록 1]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44
[부록 2]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45



3. 사이버 폭력

- 실제로 때리지도 않는데 왜 폭력이에요? 51
- 저는 그냥 장난인데... 죄가 될 수 있나요? 52
- 친구의 굴욕사진을 찍었어요! 반톡에서 다같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53
- 저는 친한 친구와 욕을 하며 대화해요. 친구가 받아주면 괜찮은거죠? 54
- 같은 반 친구가 카톡으로 계속 욕을 해요.. 너무 무서워요.. 어떡하죠? 55
- 제가 좋아하는 수진이 사진이 너무 예뻐서 반톡에 올렸는데 친구가 너무 싫어하네요.. 57
- 제 짝꿍이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대신 신고를 해도 되나요? 58
- 반톡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가 눈물표시(ㅠㅠ)로만 답해요.. 어찌죠? 59



4. 디지털 저작권·디지털 금융범죄

아이들 안무 커버영상 올리면 안 되나요?	64
직접 찍은 연예인 사진, 올려도 되나요?	66
웹하드나 P2P 사이트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67
저작권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69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파는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70
중고장터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어요! 먼저 송금해야 하나요?	70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71
중고장터에서 사기꾼에게 속아 계좌입금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72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부모님 모르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72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정보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73
휴대전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도 될까요?	74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싶어요.	74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75
스팸 문자메시지를 막을 수는 없나요?	75



01



디지털 배려





디지털 배려



친구들 안녕하세요?

컴퓨터, 인터넷, 페이스북,
카카오톡, 게임, 메신저, 유튜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해가 지고 잠이 들 때까지 하루에 한번은 꼭 만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전 세계 수많은 정보들을 클릭 한 번으로 알아볼 수 있고,

지구 반대편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악당을 물리치며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영상을 찍어 세계의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어요!



디지털이 우리에게 준 이로움이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기도 해요.

카카오톡으로 만든 **반톡**¹ 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자신의 부끄러운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녀 고통 받는 친구...
게임 속 아이템을 사려다가 사기 당한 친구...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 협박을 당하는 친구...

우리가 세상을 살며 법을 지켜야 하듯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 안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이 책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나와 내 친구를 지키고,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해요.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보다 안전하고, 슬기로운, 또 즐거운 인터넷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1 같은 반 아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만드는 단체 채팅방을 칭하는 청소년 은어



디지털 배려



식당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옆에서 다섯 살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큰 소리를 지르면
모처럼의 가족 식사가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듯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요.
그걸 네티켓이라고 해요.



<한걸음 더>

네티켓 :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
(Network+Etiquette = Netiquette)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합니다. 인종, 성별, 국적, 나이 등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의 제약없이 함께 지내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욱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네티켓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 네티켓에 대하여 알아보까요?²



인터넷 속 캐릭터·아이디·연예인도 모두 현실 속 사람이예요.

지완이는 얼마 전에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좋아하는 배우의 연기모음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그 배우의 연기를 본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 싶어 댓글들을 봤는데 못생겼고 발연기라며 많은 욕설과 근거 없는 비난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지완이가 무척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런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모습에 속상했어요. 지완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무례하고 함부로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해요.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모니터 속 글자와 사진으로만 대화를 하다 보니 상대방도 인격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예요.

아이디·캐릭터 뒤에는 나와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이디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예요.

2 The Core Rules of Netiquette (Virginia Shea, Florida State Univ. 1994)을 착안하여 구성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세요.

승혁이는 요즘 고민이 많아요. 가장 친한 친구인 수창이가 어느 날 한 연예인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다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았던 수창이었기 때문에 승혁이의 충격은 더 컸어요. 놀라는 승혁이에게 수창이는 “괜찮아. 이런 악플들 써도 크게 문제없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과연 수창이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해설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해요.

이곳에서는 윤리기준이나 행동규범의 적용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신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기준은 실생활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온라인 커뮤니티, SNS의 규칙을 준수해주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해완이는 유명한 야구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열심히 글도 쓰고 댓글도 달았는데 커뮤니티 운영자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었어요. 경고사유는 이런 거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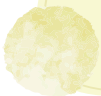
‘우리 커뮤니티는 야구 경기 및 선수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나 예측을 목적으로 개설된 곳입니다. 응원하는 팀이 아니라는 이유로 욕을 하거나 선수 개인에 대해 조롱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지사항을 읽고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인터넷에는 다양한 SNS, 커뮤니티, 게임이 존재하는 만큼 각각 사용자들의 성향과 문화가 달라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자신이 평소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조어나 은어를 사용하고, 선수를 놀리는 행동 등을 한다면 다른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커뮤니티의 성격, 공지사항 등을 살펴보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회원들이 이미 대화를 나누





고 있는 채팅방에 뒤늦게 참여할 때도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지 미리 숙지하고 참여하는 것도 네티켓 지키기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메시지는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세요.

친구 중에 메신저로 관심 없는 연예인 뉴스, 게임하기, 유머 게시판 링크를 매일 열 개 이상씩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라서 상처를 받을까 보내지 말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 친구의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래의 내용을 친구에게 잘 전달해 봐요.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글을 띄울 때,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해요. 나의 시간이 귀하듯 상대방의 시간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떤 글을 올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라면 그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내가 잘 아는 내용을 공유해보아요.

서준이는 비행기에 관심이 많은 내성적인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비행기와 관련된 책, 잡지 등은 거의 다 읽어보았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는 비행기의 정보를 나누는 카페에 가입하여 '눈팅³'을 즐겨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글에 틀린 정보가 종종 있어 서준이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인터넷 상에서도 게시글을 거의 올리지 않는 서준이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오늘도 서준이는 잘못된 정보를 가진 글을 보고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이 아는 내용과 질문들을 공유하여 자신의 지식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덧붙이는 일은 바람직한 것이예요. 내가 아는 무언가를 공유하고자 할 때, 뭔가 남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지닌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사이버 공간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는 핵심 역할을 해요. 사이버 공간의 힘은 바로 참여하는 네티즌의 숫자에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하면 수많은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질문을 읽게 되고, 이는 세계의 지식을 모두 모아 놓은 것 같은 효과를 가져 와요.

3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방 등의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되 직접 글을 쓰거나 참여하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보기만 하는 것을 '아이쇼핑'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민우와 지윤이는 서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 카페 안에서는 절친한 사이예요. 같은 가수를 좋아하여 서로의 생각에 대해 지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 가수가 낸 앨범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우는 지윤이에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 몇 번 설명해 주었지만 지윤이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친한 사이라 생각했던 민우는 화가 나서 지윤이에게 그것도 모르냐며 조롱을 하고, 욕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화가 풀릴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얼마 뒤, 욕설 사건으로 민우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났어요. 무엇이 민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해설



다양한 네티즌들이 만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언제나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문자로 논쟁을 하게 되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격렬한 논쟁이 지속될 경우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반감을 표시하다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세상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 인터넷 세상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세요.



서윤이는 인기있는 유튜버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직접 촬영하고 유튜브를 제작하여 올리죠. 업로드 한 유튜브의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서윤이는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서윤이는 축구장에 가서 촬영을 하려고 해요. 경기장 주변의 모습을 찍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경기하는 선수들을 화면에 담았고 관중 몇 분들과 인터뷰로 했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핸드폰을 들이밀면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도 잘 안 해주고 심지어 자기가 찍힌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경기장의 생생한 현장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던 서윤이의 오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서윤이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내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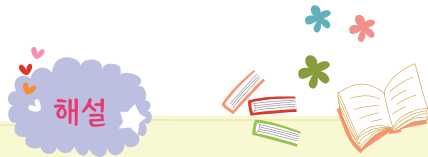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기의 얼굴이 찍혀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축구장에 온 것을 비밀로 하고 싶은 관중도 있겠지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의 사적인 생활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야겠어요.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악용하지 않아요.

경섭이는 인기 게임인 '메이플라워'의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예요. 사람들은 이 카페를 통해서 게임 팀을 결성하기도 하고 아이템도 거래해요. 꽤 규모가 커져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경섭이의 카페를 이용해요. 경섭이는 카페의 운영자이므로 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경섭이는 카페 회원 중에 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회원정보를 통해 이름과 나이를 알아냈고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보내기도 했어요. 경섭이에게 연락을 받은 회원이 이러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고 경섭이는 갑자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경섭이는 어리둥절했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경섭이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인터넷 카페 운영자나 동호회 **시삽**⁴에게는 카페 내에서 일반 네티즌보다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나 그 권한은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허락된 특권이므로 회원 정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네티즌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서는 안돼요.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범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4 시스템 운영자(SYSOP)라는 뜻으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각종 인터넷상 동호회나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 지적하지 마세요.

성범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해요. 우리 반 단톡방에서도 성범이는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도통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올리지도 않아요. 성범이는 다른 친구들이 가끔 실수하는 맞춤법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지적을 하는 편인데요. 다른 친구들이 한 두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성범이의 지적이 계속될수록 기분이 나쁘고 창피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혜진이가 올린 메시지에서 틀린 맞춤법을 발견하고 성범이가 지적을 했어요. 혜진이는 성범이가 가장 지적을 많이 하는 친구 중 한명이죠. 혜진이는 성범이 지적 뒤에 아무 말 없이 단톡방을 나가고 말았어요. 맞춤법 지적한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인터넷 환경 역시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어요. 사소한 오해가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 혹은 선의에서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했던 것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SNS나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메일이나 두 사람만 접속할 수 있는 대화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갈등을 일으킬 경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용자들 역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가 인터넷에서도 필요해요.

하지만 악성루머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법적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우리 아이와 함께! 디지털 중독 확인하기!

함부르크의 아동 및 청소년 독일중독센터가 작성한 디지털 중독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1.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진다. (예 / 아니오)
2. 인터넷이나 컴퓨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예 / 아니오)
3. 인터넷 매체를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점점 더 오래 사용한다. (예 / 아니오)
4.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더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 아니오)
5.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만 제대로 집중이 된다. (예 / 아니오)
6. 다른 사람들에게 인터넷/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예 / 아니오)
7. 컴퓨터 없는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와 같다. (예 / 아니오)
8.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 컴퓨터 보는 것을 선호한다. (예 / 아니오)
9. 미리 확실하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에 인터넷을 그만둘 수 없다. (예 / 아니오)
10. 컴퓨터/인터넷을 하다가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있다. (예 / 아니오)
11. 컴퓨터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 / 아니오)



12. 컴퓨터 말고 취미가 없다. (예 / 아니오)
13. 인터넷 활동을 열심히 해도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예 / 아니오)
14. 가족과 친구들을 점점 소홀히 대한다. (예 / 아니오)
15. 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예 / 아니오)
16.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공격적이 된다.
(예 / 아니오)
17. 인터넷/컴퓨터 때문에 수면리듬이 깨졌다. (예 / 아니오)
18. 인터넷을 하느라 잘 씻지 않는 날이 많다. (예 / 아니오)
19. 인터넷을 하느라 학교, 학원, 직장을 안 나간 적이 있다.
(예 / 아니오)
20. 인터넷 때문에 학교/학원을 가지 않은 적이 있다. (예 / 아니오)
21. 다른 일을 할 때도 머릿속으로는 인터넷/컴퓨터 생각을 한다.
(예 / 아니오)
22. 인터넷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거나 혹은 잠시뿐이었던
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결과 ◆

- 1~11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문항이 네 개 이상일 경우, 인터넷/컴퓨터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노력하세요.
- 12~22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문항이 5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도록 하세요.





'멋진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괴롭히는 악당을 물리치고 마을에 평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이야기죠?

이런 나쁜 악당들은 애니메이션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 유튜브, SNS 속에도 이런 악당들이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 사이버 악당들은 실제로 사람을 때리거나 주머니 속 실제 돈을 빼앗아 가지는 않지만...
나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여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이 사이버 악당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피해를 입기 전에 이들을 알고 예방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사이버 악당들이 도대체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02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가 뭐예요?

- 성범죄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을 말해요.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하거나 수치스럽게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해요.
- 이런 행동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말하기도 해요.



디지털 성범죄는 뭐예요?

-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인터넷, SNS 등 디지털기구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성범죄자'라고 부르죠.
-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전달하고 게시하면 안 돼요.
-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궁금한 점들이 생기나요? 그럼 우리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Q.1

장난으로 옷 갈아입는 친구 사진을 찍었어요.
장난은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몰래 사진 찍힌 친구의 기분이 어떨까요? 몰카에 찍힌 적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자신의 사진이 또 찍힐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해요.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동은 분명한 범죄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발등에 거울을 올려놓고 친구나 선생님의 치마 속을 훑쳐보거나 여학생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것이 그저 장난으로 용인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친구 사이라도, 장난이라도 불법촬영은 이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치마 속, 허벅지나 다리 부위 전체, 배,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위, 나체뿐만 아니라 수영복, 레깅스 등 얇은 옷을 입은 모습,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행위 등을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2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해서 같이 보면 안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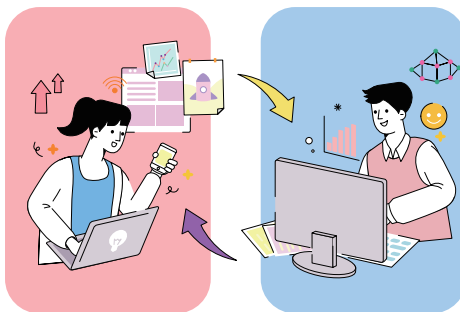
친구가 잘 나왔다고 좋아한 사진이고,
단톡방에 친한 친구들만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진을 찍을 때 친구가 동의했더라도
단톡방에 공유하려면 다시 동의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 사진이 부끄럽거나 수치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라면 친구가 더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사진을 공유하는 순간 이미 다른 친구들이 봤으니 옆질러진 물이죠. 또
다른 곳에 공유하여 전달된다면 돌이키기 힘들 거예요.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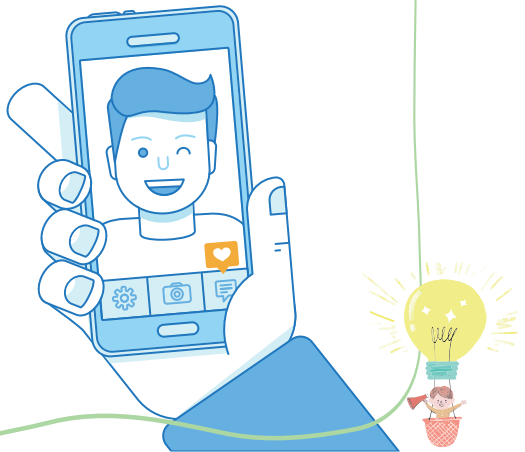


<부모님께 드리는 TIP>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SNS에 공유할 때 동의를 구해보세요!

아이들이 사진(영상) 촬영 및 공유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학습할 수 있어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포 및 재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 제14조 제2항·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친구에게 받은 몰카 영상을 혼자 다운로드 해서 보는 것은 괜찮겠죠?

우리 몰래 영상에 찍힌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봐요.

누군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신체를 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상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행위예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님께 드리는 TIP>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것을 올린 사람이 전체 공개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으로 약칭)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Q.4

어린 초등학생도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러분같이 어린 초등학생도 실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초등학생 A양이 있었는데
아이템을 사기 위해 문화상품권이 필요했지만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 모바일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부모님께
지적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A양은 온라인에서 공짜로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글을 보고
고민하다가 연락했어요. 어떤 남성이 초등학생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보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초등학생 인증을 위해
알림장 앞·뒷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알림장에는 A양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거든요.





이후 그 남성은 부모님과 카톡 친구들에게 게임 중독임을 알린다고 하면서 A양의 몸 사진을 찍어 보내야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협박했어요.

A양이 거절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친한 친구를 욕하는 게시물을 A양의 이름으로 올렸고, A양에게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니 자신의 말대로 하라며 더욱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 친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초등학생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최근 'n번방 사건'(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많은 충격을 안겨 주고 있죠. 그런데 실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Q.5

어떤 식으로 피해자가 되나요?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야 하겠죠?

(사례 1) A는 메신저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너 진짜 A 맞아? 네가 너 인걸 증명해봐”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아이디와 셀카를 보냈어요. 그러자 남성이 돌변하여 A의 사진을 알몸 사진과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사례 2) A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과 링크가 있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링크를 누르고 로그인을 하니 개인 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갔고 협박이 시작되었어요.

(사례 3) A는 랜덤채팅방에서 ‘동갑 여자’라고 소개한 사람과 친해져서 카톡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줬어요. 그러자 상대방에게 프로필 사진과 알몸 사진을 합성하여 메신저 아이디와 함께 유폐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여자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나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Q.6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온라인 채팅이나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의 이면에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마세요. 특히, 도움을 준다면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의심하세요.

내가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주고 받는 대화나 사진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도 해요. 개인정보가 뭐냐고요? 여러분의 이름이나 사진은 물론이고, 학교, 사는 곳, 휴대폰번호, SNS ID와 비밀번호 등을 말해요.

개인정보는 매우 소중한 비밀이니 잘 관리해야 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평소 아이들이 개인정보의 소중함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택배 박스의 송장을 제거하여 분리수거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휴대폰이나 SNS 등에 보안 설정하는 이유와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세요.



Q.7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박을 당하고 있다니...

얼마나 두렵고 걱정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경우,

일단 상대방에게 반응을 보이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디지털 성범죄자들처럼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증거자료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상대방과 나눈 대화, 사진, 촬영물 등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기관으로
다양한 성폭력 피해 지원
- 삭제 지원(무료), 상담 지원, 수사 지원 연계, 기타 법률 및
의료 등 지원 연계
- 전화접수 : 평일 10:00~17:00 (02-735-8994)
- 온라인 상담 : 24시간 / www.women1366.kr



Q.8

오래 전에 있었던 피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신고할 수 있어요.

오래 전에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긴 시간동안 참고 있었다니 힘들었겠네요.

지금이라도 신고할 용기를 가진 것 같아서 기뻐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피해를 당한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피해 유형과 발생 시점을

파악해야 공소시효를 판단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가 일정 기간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예요.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이나 삭제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주요 성범죄별 공소시효(아·청법,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죄 명	공소시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5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5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 등하는 행위	10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10년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아·청법 제20조 제1항)



Q.9

제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가해자가 협박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도 알려세요.
 인터넷이나 SNS 등에 불법 자료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예요.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2차, 3차의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빨리 조치해야 해요.
 가해자와 일대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세요.
 가해자를 신고하고 사진·영상을 삭제했는데 또 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처음처럼 다시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 준비가 되어 있으니 힘내세요!

○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Q.10

촬영에 동의한 저의 영상을 SNS에 올린대요.
제가 동의했으니까 제 책임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만약 영상을 촬영할 때 동의했다고 해도 유포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유포하고 협박하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가해자에게 마음을 열거나 개인정보를 줬다고 해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을 명심해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지 마세요.

현재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어려움을 이겨낼수록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용기를 내요!





[부록 1]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어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는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 촬영, 유포, 협박 등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9884), 여성긴급전화1366(☎지역번호+1366),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 삭제, 수사 근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호자·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 ◇ 행동 안전수칙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제작하였으며, 대상 연령 및 학습 현장 등을 고려하여 수칙 내용을 변경해 사용 가능합니다.

[부록 2]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줍니다!
- 아동·청소년의 피해사진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9884), 여성긴급전화1366(☎지역번호+1366),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 삭제, 수사 근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호자·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 ◇ 행동 안전수칙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제작하였으며, 대상 연령 및 학습 현장 등을 고려하여 수칙 내용을 변경해 사용 가능합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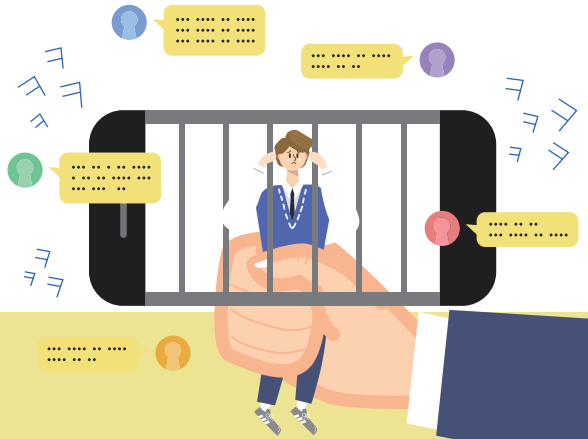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언어·행동을 포함하고요. 장난으로 생각하더라도 당하는 상대방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폭력적 행동을 말해요.

사이버 폭력은...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이버 모욕 :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게시하거나 작성·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게시하거나 작성·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괴로움을 주는 행위

사이버 성희롱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대화를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일 또는 신체 노출 및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전달·강요하는 행위

사이버 불링(bullying) :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의도적으로 가해지는 행위로 개별적인 가해행위는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사소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지속되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렇게 실제 세상이 아닌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꼭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럴 때는 꼭 살펴보세요! “7원칙”

1. 자녀가 갑자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계정에서 탈퇴한다.
2.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3. 용돈을 갑자기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 사용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4. 자녀 SNS 계정의 첫화면이 매우 부정적이거나 공란이다.
5.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계정에 참여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6.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예민하게 굴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있다.
7. 스마트폰이나 PC로 게임을 하는 시간이 갑자기 매우 늘었다.



Q.1

실제로 때리지도 않는데 왜 폭력이에요?

실제로 친구를 때리거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관계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때로는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사이버 폭력은 언제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요한 괴롭힘이 발생해요.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친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이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잊으면 안 돼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Q.2

저는 그냥 장난인데... 죄가 될 수 있나요?

나의 사이버 상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는 친구가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몇 가지를 잘 기억해두길 바라요.

1. 사이버 공간에 글을 쓸 때는 신중하게! 글을 쓰기 전에, 멈추기 ▶ 생각하기 ▶ 다시 읽기 ▶ 고치기를 습관화해요. 키보드에 손을 얹기 전 딱! 한번만 멈춰 봐요.
2. 역사사지, 친구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나부터 실천해요.
3. 친구들에게 무작정 휩쓸리지 않아요.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면 나부터 STOP!
4. 정직하고 당당하게! 내 아이디어가 바로 나의 인격이에요. 익명성 뒤에 숨으면 나도 숨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우리아이 사이버 폭력 예방법

1. 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항상 관심을 두고 대화를 나눠요.
2. 평소 올바른 언어습관을 가질 수 있게 자주 이야기 나눠요.
3. 사이버 상의 세상도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요.
4. 음란물, 폭력물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요.
5. 부모님도 스마트폰과 PC와 가까워져요. 우리가 알아야 대화도 할 수 있겠죠?





Q.3 친구의 굴욕사진을 찍었어요! 반톡에서 다같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일단 STOP!!

시장이나 백화점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우리 친구의 부끄러운 사진을 걸어두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이버 공간은 백화점보다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친구들이 같이 공유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 친구가 부끄러워할만한 사진을 올리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삼가야겠죠?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장난으로 올린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TIP>

타인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공개된 곳에 게시하는 것은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소 스마트 폰으로 어떤 사진을 찍는지 궁금하시죠? 스마트폰 사진을 함께 보며 자연스럽게 아이와 이야기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Q.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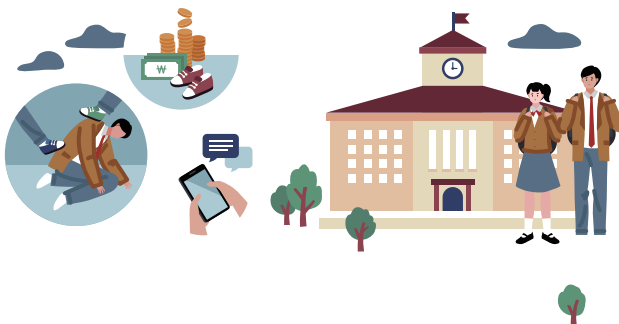
저는 친한 친구와 욕을 하며 대화해요 친구가 받아주면 괜찮은거죠?

친한 친구사이라도 욕설이나 은어를 사용한 대화는 하지 않도록 해요.
욕설은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욕설을 할 때 친구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싫어도 받아주는 것일 수 있어요!
한번쯤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너무 심한 욕을 하지는 않았는지...

만약 친구가 한번이라도 싫은 기색을 내비치거나 거부하는 말을 했다
면 즉시 중단해야 해요. 우리나라 법에는 모욕죄라는 것이 있어서
무서운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든 욕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우리 더 이상은 거친 말로 부끄러운 흑역사를 만들지 말자구요!



Q.5

같은 반 친구가 카톡으로 계속 욕을 해요.
너무 무서워요.. 어떡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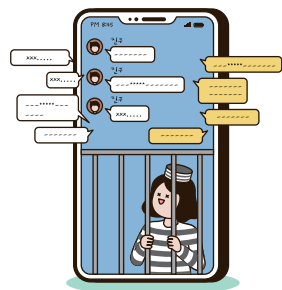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욕을 하는군요.

친구에게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장난이라도 욕을 그만하라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이럴 때는 아주 단호하게 해야 해요.

만약 그 후에도 욕설 문자가 계속 온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선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께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해가 계속된다면?

가해친구의 욕설이나 협박이 드러난 채팅화면을 캡처하여 휴대폰이나 PC 등에 잘 보관하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라면?

1.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이와 대화하세요.
2. 절대로 아이를 채근하거나 재촉하지 말아요.
3.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학교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5. 절대로 가해자 및 그 가족을 직접 만나지 마세요.
6.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필요시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



Q.6

제가 좋아하는 수진이 사진이 너무 예뻐서 반특에 올렸는데 친구가 너무 싫어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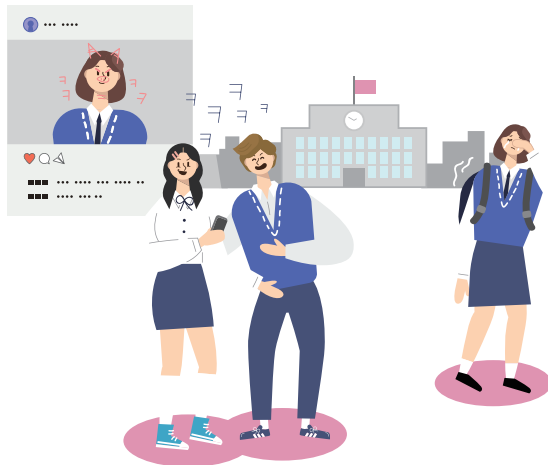
수진이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수진이가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반특에 올리기를 원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동의 없이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수진이 사진이 예뻐서 좋더라도 수진이는 그 사진을 싫어할 수도 있고, 반특에 올려서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싫어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바로 사진을 삭제하고 수진이에게 사과해보세요.
오히려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Q.7

제 짝꿍이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대신 신고를 해도 되나요?

정말 정의로운 친구로군요.

옆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려야 해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건 고자질이 아니에요.

나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요.



Q.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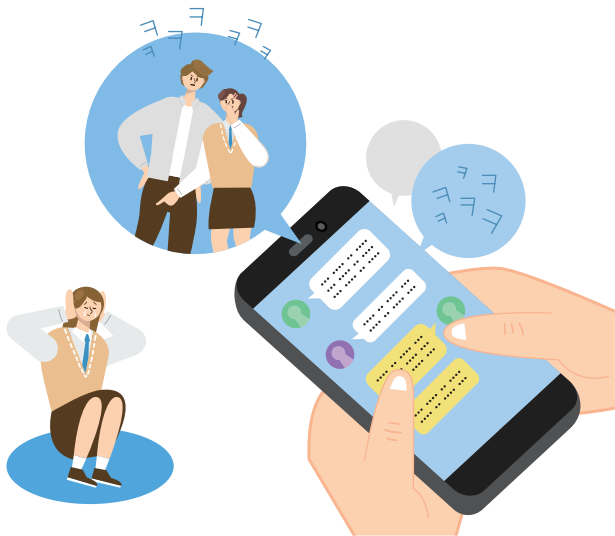
반특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가 눈물표시(ㅠㅠ)로만 답해요.. 어찌죠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명백한 사이버 폭력이에요.

이것을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요. 친구들이 장난인데 예민하게 군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더욱 큰 집단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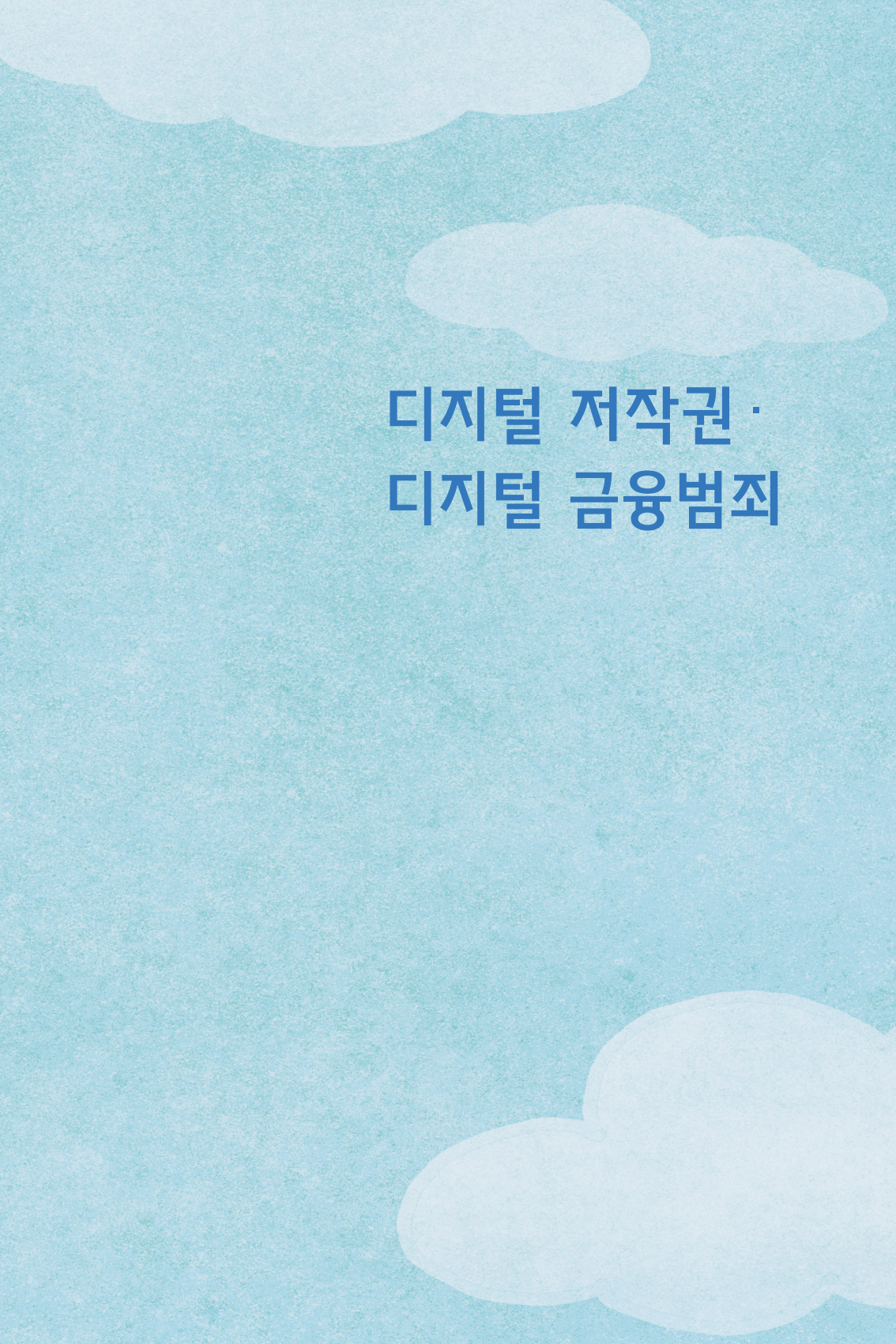
거부감이 드는 말과 행동에는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럼에도 계속 같은 괴롭힘이 반복되면 그 공간을 떠나 주변 어른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세요!





04

The background is a solid teal color with a fine, grainy texture. Three stylized, white, fluffy clouds are scattered across the page: one at the top left, one in the upper middle, and one at the bottom right.

**디지털 저작권 ·
디지털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 디지털 금융범죄



저작권이 뭐예요?

- 저작권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보호해주는 열쇠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권리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쓴 글이나 그린 그림도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이 되죠.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 그건 창작자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BTS의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하지 않고 정당하게 구매해야 BTS도 그 수익으로 다시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그 음악을 다시 즐길 수 있어요. 저작권은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해요.



인터넷·금융 사기가 뭐예요?

- 인터넷사기는 온라인상에서 물건이나 게임 캐릭터,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하면서 상대방을 속여 금전상 이익을 챙기는 범죄예요.
- 금융사기는 전화통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서 돈이나 개인정보 등을 빼앗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문자(SMS)를 이용하는 스미싱,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파밍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Q.1

아이들 안무 커버영상 올리면 안 되나요?

요즘 아이들 가수의 안무를 따라하는 커버 영상이 유행인데요.
노래의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있듯이
안무는 그것을 만든 안무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한 일이 있었어요.

커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안무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방송댄스를 가르치는 A댄스학원에서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를 이용한 수업 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려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노래의 안무가는 댄스학원 측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샤이보이의 안무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Q.2

직접 찍은 연예인 사진, 올려도 되나요?

좋아하는 연예인을 직접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예인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면 여러분에게 저작권이 있어요.

따라서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사람에게는 초상권이란 것이 있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연예인들은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라 초상권 침해 범위가 일반인보다 넓지는 않지만, 그 사진으로 인해 명성이 훼손되거나 돈을 버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인의 사진은 당연히 초상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겠죠?

누구나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가 있으니

상대방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초상권을 주의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누리집에 초상권 침해를 신고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내 초상권 침해 정보 25건을 심의하여 6건의 차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창작자는 초상권 등 개인 정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영상에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웹하드나 P2P 사이트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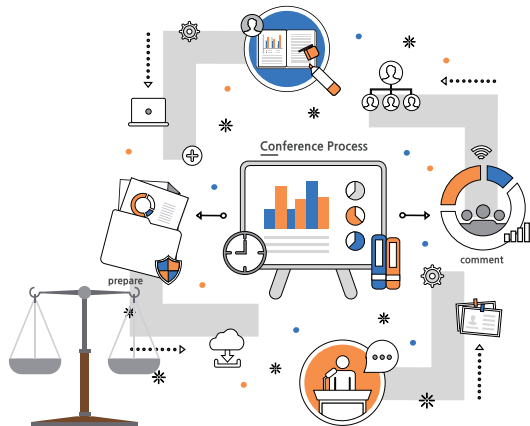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웹하드, P2P, 토렌트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사이트의 일명 제휴콘텐츠는 저작권자에게 일정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제휴되지 않은 콘텐츠는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특히, P2P나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동시에 자신의 자료가 업로드 되니까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는 행동이니까 우리 모두 굿(Good) 다운로더가 되기로 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P2P는 공유 폴더가 형성되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업로드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는데, 이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P2P를 이용하거나 제휴 콘텐츠가 아닌 저작물을 내려 받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떠한 파일을 다운 받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사적복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제' 행위뿐만 아니라 '전송' 행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Q.4

저작권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정품을 구입해서 이용하자!

친구들과 공유하면 돈도 안 들고 편리하겠지만

음악, 영화, 학습자료 등 모두 정품으로 구입해야 해요.

두 번째,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하자!

정품을 구입했다고 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개된 곳에 올리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저작권에 대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저작권의 고수가 되는 날까지 화이팅!



<부모님께 드리는 TIP>

○ 저작물 이용단계

1. 이용할 저작물 결정
2.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확인 : 보호기간 만료, 저작권법 적용 여부
3.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방식인지 확인 : 허락 없이 이용 가능 여부
4. 저작권자에게 제목, 이용방법 허락 요청
 - 허락을 도와주는 단체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대리중개업체
5. 허락받은 범위 내 이용 : 저작자 및 출처 표시 등



Q.5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파는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 장터에서는 물건이나 게임 아이템 등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 등을 판다고 게시물을 올린 후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판매자들이죠.

이런 행위는 범죄에 해당해요!

하지만, 그런 범죄자들을 모두 찾아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는 하지 않도록 하여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요!



Q.6

중고장터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어요! 먼저 송금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통해 개인끼리 거래한 경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드시 개인 간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면 직거래를 이용하도록 하고, 택배 거래를 해야 한다면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해요.

Q.7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검증된 오픈마켓에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추가할인 등을 제시하며 별도 계좌를 통해 현금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판매자는 주의해야 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물건을 구매할 때는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도록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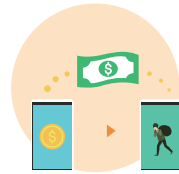


Q.8

중고장터에서 사기꾼에게 속아 계좌입금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곳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요!

- 112 경찰서(피해신고, 지급정지)
- 182 경찰민원 콜센터
- 118 인터넷진흥원(해킹상담, 원격점검)
- 1332 금융감독원(피해상담 및 환급)
- 사이버범죄신고 <http://cyberbuteau.police.go.kr>
- 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www.krцер.or.kr



Q.9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부모님 모르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사기 등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도움을 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Q.10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정보를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직업,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하죠.

이러한 것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합니다.

금융기관 등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화가 왔을 때는 직접 응답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후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Q.11

휴대전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도 될까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함부로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문자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고 클릭하세요.

실수로 문자의 링크를 클릭한 후 앱을 설치하였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18)에 신고하여 대응 방법을 안내받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해요.



Q.12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싶어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범죄가 있어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설정을 통해 “Play 스토어 외 출처의 앱 설치 허용” 옵션을 꺼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아이폰은 기본설정상 ‘앱스토어’등록 외 애플리케이션 설치 불가)



Q.13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기
2. 첨부파일 열람 및 저장 전에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하기
3. 공공장소 PC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가급적 사용 자제하기
4. 컴퓨터를 개방된 공간에 두고 가족들이 공유하기
5. 부모의 주민번호, 신용카드 및 기타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기
6. 자주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하기
7. 다양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해 백신과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하기

Q.14 스팸 문자메시지를 막을 수는 없나요?

휴대전화 스팸을 완벽히 막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스팸 수신을 차단하여 불편을 줄일 수는 있어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면, 특정 광고문구가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번호로부터 수신된 스팸 수신을 예방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 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사이버폭력 예방·정보윤리교육 서비스(cyberethic.edunet.net)
- 학교폭력종합정보서비스 도란도란(dorandoran.go.kr)

cyberethic.edunet.net / dorandoran.go.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자료,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자료, 학부모용 교육자료 등

stopbullying.re.kr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 청소년 통합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

www.wee.go.kr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 청소년 사이버 상담(게시반, 채팅상담) 서비스

www.cyber1388.kr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서비스

cyberbureau.police.go.kr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상담서비스

www.safe182.go.kr



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서비스

www.jikim.net



스마트쉼 센터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및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

www.iapc.or.kr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이승현 외(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 (www.bullyinghelper.or.kr).
- 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 예방 · 대응 가이드.
- 교육부 · 전라남도교육청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리 아이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도우미.
- 교육부 ·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 상담 개입 및 치유 프로그램.
- 김기홍 외(2016),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진원(2019),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깨알 가이드 깨톡 (www.teen-it.kr/for-teen).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www.women1366.kr/stopds/).
- 여성폭력 Zoom-in (www.stop.or.kr/women/).



만든 이

정소연(법무부 보호정책과장)

김기환(법무부 보호정책과)

김영준(법무부 보호정책과)

이동준(법무부 보호정책과)

김동하(법무부 보호정책과)

장선영(법무부 보호정책과)

최용철(법무부 보호정책과)

허천영(법무부 보호정책과)

김정호(법무부 보호정책과)

허재벽(법무부 치료처우과)

송한준(법무부 치료처우과)

황규상(법무부 소년보호과)

도움주신 분

김영주(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진우(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영미(법무법인 송인 변호사)

양영화(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안전·배려·공감의 디지털 세상 만들기, 디지털 소통로(law) 초등용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발행 2020년 4월

디자인 · 인쇄 (주)파스텔북 070-8181-2891

* 이 책의 일러스트, 삽화는 (주)파스텔북에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자와의 협의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86140-26-0(75360)